

1 농업인의 날(11월11일)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우리 농업 및 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자는 취지에서 1996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이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국으로, 농사를 중시하는 전통이 발달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도 왕이 농사를 권장하는 권농의식을 행할 정도로 농업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며 세월이 흐르면서 농업은 점차 산업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농업인의 날이 지정되었습니다.

[11월 11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배경]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밟 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土月土日’의 흙‘土’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풀어쓰면 ‘十’과 ‘一’이 합쳐진 11월 11일(十一月十一日)이 된다는 데 착안한 것이랍니다.

또한, 이 시기는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쉬며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출처: [출처]11월 11일에 숨겨진 기념일, 농업인의 날과 지체장애인의 날(빼빼로데이 아님)!
작성자 경기도교육청

2 11월 제철 식재료 “배”

달달한 맛, 달달한 느낌 배




달달한 맛과 아삭아삭한 식감, 흘러넘치는 과즙까지 씹을수록 오감을 자극하는 배는 음료, 잼,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과일이다. 배에는 루테올린 성분이 함유되어 가래와 기침, 감기를 완화하며, 흡연이나 매연 등으로 몸 안에 쌓이는 발암 물질을 빠르게 배출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자주 섭취해야 하는 과일로 평가받고 있다.

배 고르는 법

질은 황색을 띠고 모양이 둥글고 큰 것이 좋으며, 두께가 얇은 것을 골라야 한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산품 정보누리(www.fooduri.go.kr)

3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급식실 이용 수칙

<p>마스크 착용</p> <p>식사 전과 식사 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p> 	<p>개인간 거리두기</p> <p>서로를 지킬 수 있는 거리는 꼭 유지해 주세요!</p> 
<p>급식실에서는 대화금지</p> <p>학교에서 유일하게 마스크를 벗는 공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급식실에서는 대화를 금지합니다.</p> 	<p>안전한 학교급식!</p> <p>여러분이 지켜주세요!</p>

출처: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